## 장애인 인식 개선

1405 박상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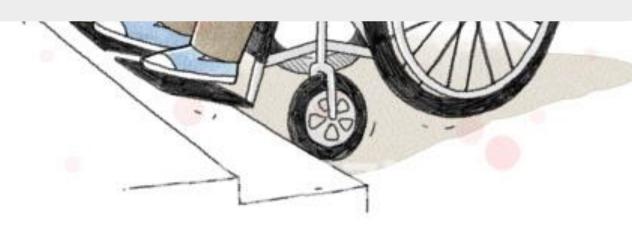




지난 13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만난 주희 씨 아버지(61)도 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"큰형님이 주먹으로 막 때린다"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했다.

큰아버지가 16년 동안 기초 생활 보장 수급비와 장애 급여 등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.

어머니는 손님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.





- 2. 기초수급비와 장애급여 등을 강제로 빼앗음.
  - 3. 급여를 주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킴.



장애인 마크의 변화



미 보스턴 하버드대 디자인 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사라 핸드렌이라는 다운증후군 아들을 둔 엄마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한 장애인 마크에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. 사람들이 새 마크가 더 역동적이라고 느끼길 바랬고 그런 사람들은 마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. 결국 여러 공공장소에서 이 마크가 쓰여지게 되었다.





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장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, 이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,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차별 경험은 여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.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,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없애고 더 이상의 차별을 막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.